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

2009년 3월 27일,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신양인문학술정보관(4동) 국제회의실에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2008년 인문한국(HK) 사업 해외지역연구 라틴아메리카 분야에 나란히 선정된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와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학술대회에서는 여러 학자들이 참여하여 지역연구의 역사, 방법론, 딜레마를 논의했다. 이번 호에는 김정일, 전제성, 이성형의 발표문을 실는다. [편집자]



■ 한국 사회와 지역연구의 방향성

김 경 일¹⁾

1. 머리말

한국사회에서 지역연구가 학계의 관심으로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출범한 이른바 문민정부 시기였다. 지구화와 세계화의 현란한 구호를 배경으로 등장한 지역연구는 대폭적인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으면서 ‘급성장’한 대표적인 영역이었다. 대학에서 지역연구에 관련된 학과나 학부 또는 전문 대학원은 정부와 해당국의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의 대상이 되었다.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분과와 동일시하면서 산발적이고 보조적으로 일정 지역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던 연구자들의 전통적 모임은 갑자기 활기를 띠었으며, 이와 아울러 지역에 관한 새로운 연구계획의 수립과 학회들의 창립이 속속 이어지게 되었다.

돌이켜 보자면 지역연구의 이러한 급작스런 붐은 지역연구자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온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연구자들의 내재적인 필요와 주도에 의해 제기되었다기보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해 외부에서 위로부터 추진되었다. 이른바 지구화의 전반적 추세 속에서 한국의 ‘정치적 생존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의 극

1) 이 글은 학술대회 〈2009 인문한국(HK) 해외지역연구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소 공동학술대회: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2009년 3월 27일 서울 대학교 인문대학 신양인문학술정보관(4동) 국제회의실)에서 발표한 것이다.

대화'라는 동기에 의해 지지되면서 지역연구가 급속하게 활성화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분과에 대한 연구자의 동일시에 대신하여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지역에 대하여 오히려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도 더 이상 낫설지만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지역연구의 지배적 경향은 그것이 표방하는 학제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단일 국가와 단일 지역 중심의 미시적이고 기술적 연구가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한 정도의 지역연구 성과의 축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지역 사이의 연결이나, 지역과 그것이 속한 보다 큰 지역과의 관계, 나아가서 세계체제 내에서 위치와 역할 등에 대한 관심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시도로 남아 있다. 전통적 학문 분과들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별로 세분화된(compartmentalized) 현재의 대학 제도에서 지역연구 전반에 관한 논의나 그것의 이론적 방법론적 의미에 관한 검토는 자신의 전공 지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피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의 유교사회론이나 일본사회론에서 보듯이, 하나의 지역이나 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하위 문화들과 상이한 이해관계의 편차들을 고려하지 않고 통합된 하나의 이미지를 통해 지역을 이해하고, 또 그 지역에 관한 정체성을 만들어 내려는 경향도 드물지는 않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관행들이 특정 지역에 대한 피상적 이해를 조장하고 지구적 쟁점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불가능하게 한다.

미국에서 지역연구가 제2차 대전 이후 1970년대의 위기에 이르기까지 20~30년의 호황을 누렸다고 한다면 한국에서 지역연구는 외면상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위기는 동시에 기회라는 진부한 표현을 빌려올 필요도 없이 오히려 지금의 위기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

역연구가 발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외부에서 부과된 상태에서 결여될 수밖에 없었던 지역연구에 대한 내재적인 동기 부여와 그것의 의미에 대한 충분한 지적 검토와 성찰이 지금의 시점에서 오히려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2. 미국의 인문사회과학과 지역연구

지역연구가 전형적인 형태로 발전하였던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한국에서 지역연구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지하듯이 세계의 특정 지역에 대한 연구라는 의미에서의 지역연구는 좁은 의미에서 미국이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면서 발전의 계기를 얻었으며, 종전 이후 지역연구가 대학 내에 정착하면서 대학 사업의 일부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비록 정책 지향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지역연구는 전후 대학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특히 인문사회과학의 주류 이론들과 상호 작용을 하면서 이론과 방법론의 영역에서 다양한 쟁점들을 제기하였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그러했지만 미국의 학문은 이른바 분과 학문들(disciplines)이 주요 구성요소가 되는 대학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사회적 실재는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분리된 다수의 현실 영역에 대한 집중된 숙련을 요구한다는 신념에 입각하여 이들 분과들은 20세기 초를 전후로 하여 점차 세분화되고 분절화 되었는데, 특히 미국에서 대학 발전의 특성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극도의 세분화와 과도한 전문화로 인한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예컨대 학문적 고립이나 편협성(parochialism)

이라는 수사가 미국 대학이 ‘위기’에 처했다고 운위될 때마다 고질적인 병폐들 중의 하나로서 흔히 거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대학 제도는 구조적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실험해 온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1865년에 설립된 미국사회과학회(American Social Science Association)에 의한 통일 사회과학(Unified Social Science)의 추구 또는 1923년 창립된 사회과학연구협의회(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가 주도한 종합 사회과학의 시도, 또는 1970년대 이후 여성학이나 인종, 그리고 최근의 문화나 환경 프로그램들과 비슷하게 지역연구(Area Studies)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대학 체계가 시도한 하나의 커다란 실험으로 볼 수도 있다.

지역연구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헤게모니를 위한 국가 이익의 수호라는 동기에 의해 좌우되었다고는 하더라도 그것이 미국의 인문사회과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다. 미국의 대학에서 지역연구는 전통적 학문 분과들에 대한 대안의 제시, 분과적 접근 방식의 차이와 제도적 측면에서 양자의 관계와 위상, 다학문체제와 보편적 사회과학의 지향, 비교적 분석과 시각의 문제, 문화적 상대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 가치중립성과 실천의 문제 등과 같이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문제들과 쟁점들을 제기하여 왔다. 나아가서 그것은 최근의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 담론이나 동아시아론과 같은 포괄적인 지적인 주제들에 대한 관심과 연결되어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에서 종합학문에 대한 지역연구의 지향은 지역연구가 미국의 학계에서 공식적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초기 지역연구자들은 지역연구가 지니는 학제적 연구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전후 시기의 지역연구는 종합적 지식에 대한 열

망과 그것을 위한 노력의 표현으로서 일종의 보편 과학의 정립을 추구하였다. 초기 지역연구 문헌들이 한결같이 다학문 체제의 필요와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는 지역연구의 효용성을 강조하여 왔던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전 직전에 미국교육협회의 주관에 의한 펜튼 보고서는 사회과학에서 지역연구는 ‘분과 제국주의’에 반대하여 각 학문 분과들을 통합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하였다. 통합된 지역연구는 그것의 본성상 대학의 정규적인 분과 조직을 위협하며, 그것의 방법론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라고 이 보고서는 주장하였다(Fenton 1947: 25-26, 82). 지역연구에 대한 가장 지속적이고 강력한 후원자였던 미국사회과학연구협회의 초기 보고서들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1947년 이 협의회 부설의 세계지역연구위원회(Committee on World Area Research) 활동의 일환으로 미국 대학들에서 지역연구의 상태를 최초로 조사한 보고서는 지역연구의 4가지 목적 중에서 “세계의 각 민족과 지역에 관한 지식의 자원을 확장함으로써 총체적 세계 지식을 확보”하는 것과 “연구에서 학제적 협동과 결과들의 통합을 자극”하는 것, 그리고 “(인문)사회과학의 보편화를 위한 자료와 경험의 제공”을 들고 있다. 즉 지역연구는 사회과학은 말할 것도 없고 인문학 전체와 일부 자연과학의 참여를 요구한다는 것이다(Hall 1947: 46-50). 지식의 통합은 모든 주요 국가들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바, 이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의 모든 과학들의 사실들과 발견들을 함께 통합하여 그것들의 상호관계를 고찰하는 것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학제적 접근으로서 집단 연구에 대한 점증하는 필요를 요구할 것(Hall 1947: 47)이라는 것이다.

학제 연구는 1947년에 개최된 미국 최초의 지역연구 대회에서

도 강조되었다. 예컨대 대회에 참석하였던 파슨즈(T. Parsons)는 지역과 그것의 문화 및 사회에 관한 연구는 많은 과학들의 공동의 기여를 요구하며, 지역은 사회과학 분과들 및 이와 관련된 인문학과 자연과학 분과들의 구체적인 협동의 장을 제공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Wagley 1948: 5, 15-16). 그리고 이를 통하여 “다양한 사회과학 분과들 사이에서의 협동”, “사회과학의 보편화”(Wagley 1948: 5-9)를 지향하고자 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스튜워드는 지식의 과도한 세분화로 말미암은 부적합성이 서구 산업 사회의 연구로부터 도출된 전통적 방법들을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 적용할 때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진단하면서 각각의 세계 지역에 관한 총체적 지식에 의거하여 모든 학문 분과들의 연구 성과를 상호 연관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보편 사회과학(universal social science)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생각은 현재로는 단지 꿈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지역적 접근이 그러한 목적을 위한 가능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믿었다(Steward 1950: 5, 153). 미국대학연합(CIU)의 보고서 역시 지역연구는 전통적 분과들 사이의 담이 견고해 지는 것에 대한 반작용에서 계기를 얻었다고 보았다. 지역연구는 학문 분과들의 분절화를 교정하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하였던 바, 그것은 단순히 분과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시각들을 결합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를 통하여 학문 분과들 사이의 간격을 매우고 특정 지역의 생활과 사상을 다차원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CIU 1964: 28).

비슷한 주장들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1980년 아시아학회(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회장으로 취임한 쉬워츠(Benjamin I. Schwartz)는 취임 연설문에서 지역연구의 지향을 “경제와 사회, 정치, 종교를 비롯한 삶의 다양한 영역들에서 복합

적 상호작용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집합적 경험에 대한 학제적(cross-disciplinary) 연구”로 요약하였으며(Schwartz 1980: 15), 비슷한 맥락에서 지역연구는 분과 학문들처럼 단절된 부분들을 자의적으로 결합시킨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전체에 대한 탐구로서의 전문화적 접근(whole-culture approach)으로 정의되기도 하였다(Prewitt 1981-82: xvi). 최근의 연구에서 지역연구는 “특정 장소나 문화에 관한 총체적(holistic)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정의되었다. 지역은 지식의 체계적 축적을 위한 맥락(context)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서는 언어와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분석을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Koppel 1995: 4).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인문사회과학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역연구를 통한 학제적 연구는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 문제는 지역연구가 독자적인 방법과 이론을 확립하는 대신에 오히려 각 분과들의 절충을 통한 통합을 주장할 때부터 이미 예견할 수 있었다. 결국 미국에서 지역연구는 나름대로의 종합을 달성하는 대신에 기존 분과 체제로 흡수되어 가면서, 1970년대 이후 지역연구가 주장했던 학제적 연구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예컨대 사회과학연구협의회가 주관하여 1968년 착수한 바 있었던 전국 대학에서 지역연구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보고서에서 램버트는 학제적 정식화(cross-disciplinary format)를 위한 지역연구의 약속의 대부분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Lambert 1973: 3). 또한 지역연구가 학제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역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수진이 다양한 분과들에서 왔다는 실제적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하면서 지역연구가 초기에 전통 분과들에 대한 대안으로 학술 조직의 기본 양식 또는 단위

로서 지역을 상정하였던 것은 오류이자 과장된 주장이라는 지적(Ward 1975: 33-34)도 있었다.

1983년의 한 보고서는 해외 언어와 지역연구 프로그램과 관련한 학제적 측면의 주제에 관하여 “언어와 지역연구는 시간에 따라 더욱 학제적으로 되어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였으며(McDonnell et. al. 1983: 26), 비슷한 시기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지역연구의 학제적 도전은 “미국 대학 교육에 고질적이라고 보였던 학과의 편협성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그것을 구체화하는데는 실패하였다(McCaughey 1984: 220-21)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지역연구 프로그램의 창출이 분과적 고립들에 의한 지적 노동의 분할을 초월하는 새로운 지식의 종합이나 진정으로 총체적이고 학제적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지 못함으로써 지역연구 40년 이상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은 당혹할 만하게 유동적인 것으로 남게 되었다(Palat 1996: 21-22). 그리고 이는 미국에서 지역연구가 새로운 프로그램들의 정립을 통하여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자신의 연구 영역을 정당화하는데 실패하였던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3. 한국사회에서 지역연구의 지향과 모색

지금까지 살펴 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연구가 미국의 지성사에서 의미 있는 일부였다고 할 때, 전통적 의미에서의 지역연구는 지구화와 세계화의 전반적 추세 앞에서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 가는 지구적 쟁점들이나 초국적(transnational) 현상들에 대한 유용한 설명이나 설득력 있는 대안들의 제시에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역연구가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실에 의해

무력화된 것만은 아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지역연구의 한계와 실패는 그것이 출현한 역사적 맥락에 이미 내포되어 있었으며, 그것에 내재한 지적 가정들과 지향들에 의해 일찍이 결정되어 왔던 것이다.

이처럼 종래 지역연구가 추진해 온 장기간에 걸친 영역과 계획들이 지구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변화들로 인해 더 이상 적절하게 수행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역연구의 미래와 전망에 대한 새로운 방법과 시각이 모색되어 왔다. 사회과학연구협회는 연례보고서에서 1980년대 지역연구의 회고와 전망을 언급하는 가운데 지역연구를 사로잡아 왔던 7가지 난점들 중의 두 가지로 미국이 연구 대상으로 했던 세계의 각 지역의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지적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 및 이에 따른 제3세계의 학문적 주제에서 토착화(indigenization)의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을 들었다(SSRC 1981-82: xiv). 이와 더불어 이 보고서는 국경과 문화적 경계들을 초월하면서 넘나드는 지구적 쟁점들(global issues)²⁾을 위해서는 국지적이고 특정 장소 지향적인 지식과 세계 각 지역의 수평적·수직적 상호 의존성을 결합할 수 있고, 분리된 각각의 지역들을 지구적 차원에서 인식하는 연구 언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지구적 환경 전략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민주화와 경제 개혁, 또는 성관계(gender relation) 등과 같이 현재의 지구적 쟁점들에 초점을 맞춘 다수의 초분과적(transdisciplinary)·초지역적(transregional) 위원회들과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조직되고 있는 것(Koppel 1995: 43-44)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2) 구체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노동과 금융자본의 초국적 흐름, 종교와 정치 이데올로기 및 과학 및 기술 문화들의 확산, 테러리즘의 만연과 핵무장의 증대, 전지구적 경제 질서의 변모와 지속적인 국제 안보 문제, 평화 운동과 핵동결운동(SSRC 1981-82: xvii).

것이다. 1990년대 이래 미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는 여러 위원회들의 조직을 통하여 국제 문제에 관한 인식을 강조하면서³⁾, 지구문화적 지식의 확장이나 지역들 사이에서 분석 범위의 확대, 또는 초국적 현상에 대한 탐구 등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SSRC 1993-94). 사회과학연구협의회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11개의 합동 지역연구위원회(Joint Area Studies Committees)를 후원하고 있는 인문학협의회(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역시 이 위원회들을 통하여 “특정 지역에서의 연구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그 지역에 통달한 비교적이고 초민족적(transnational) 연구를 진행한다”는 이중의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ACLS 1994: 5).

미국의 이러한 경험은 한국에서 지역연구가 어떠한 길을 지향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일정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일찍이 SSRC의 연례보고서(1981-82)가 지적하기도 했지만 제3세계 지역 연구자들에 의한 지적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나 학문의 토착화라는 주제에 대한 인식의 대두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해방 이후 우리 인문사회과학의 역사가 서구와 미국의 이론과 방법론을 수입하여 그것을 한국사회에 적용해 보는 것이 주류였다고 한다면, “타국”에 대한 연구들을 통하여 이제는 거꾸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생산자의 자격으로 이론의 창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만일 지역연구자가 서구에서 배운 이론에 따라 설정한 모델에

3) 국제문제와 관련하여 조직된 위원회로는 국제 평화와 안보위원회(Committee o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지구환경변화연구위원회(Committee for Research on Global Environmental Change) 및 문화와 보건 및 인간발전위원회(Committee on Culture,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위원회의 구성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비서구지역을 포함한 지구적 범위에서의 학자들의 참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등과 함께 물리학이나 생물학, 공학, 물리지리학 등의 자연과학이 포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SSRC 1993-94: 13).

입각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모델의 전제와 가치가 그 이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러한 경우 자신의 연구가 내재적으로 축적되어 고유한 성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외부의 모델과 이론을 보완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세계인식의 새로운 방법”으로서 지역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체적으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한 지역연구자는 지역연구는 “20세기가 낳은 새롭고도 독특한 지성주의의 구도로서 뛰어난 존재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실제 경험은 그것으로 반성하고, 지금은 미래의 지성에 연결되는 바람직한 세계 인식의 패러다임으로서 이것을 재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야노 도오루 1993: 67-8).

한국의 학계에서도 최근 세분화된 분과학문에 대한 반성·비판과 아울러 복잡다기해가는 현실에 대한 새로운 학문체계와 학문의 융합, 혹은 지식의 통섭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다학문체제와 보편 학문, 그리고 지식의 통합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지역연구야말로 이러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실험이 될 수 있다. 지구화의 추세가 일정 지역 내의 국지화(localization), 토착화(indigenization)와 밀접하게 맞물리면서 진행된다고 할 때, 특정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대한 감수성(context-sensitivity)이야말로 지역연구의 본령이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경일, 1995. 「근대과학의 ‘보편주의’와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 월러스틴의 역사사회과학을 중심으로」, 《창작과비평》 제89집(가을호).

- 김경일 편. 1998.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문화과학사.
- 신윤환 · 이성형. 1996.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외대 대학원 지역학연구회 (편). 《국가전략》 제2권 제1호.
- 이상섭 · 권태환 편. 1998.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재천 · 주일우 편, 2007. 『지식의 통섭 - 학문의 경계를 넘다』. 이음.
- 야노 도오루(矢野 暢). 1993. 「지역연구란 무엇인가」, 矢野 暢 편, 강좌 현대의 지역연구(1), 『지역연구의 방법』의 제1장 3-22. (아시아지역경제연구회 역. 『지역연구의 방법』. 전예원. 1997)
- 鈴木一郎. 1990. 『地域研究入門 - 異文化理解への道』, 東京大學出版會.
- 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1994. *Newsletter*, vol. 4 no. 2 (summer).
- Berry, Wendell. 2001. *Life Is a Miracle: An Essay Against Modern Superstition*, Washington: Counterpoint(박경미 옮김. 『삶은 기적이다 - 현대의 미신에 대한 반박』. 녹색평론사. 2006).
- Commission on International Understanding. 1964. *Non-Western Studies in the Liberal Arts College*: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 Fenton, William Nelson 1947. *Area Studies in American Universities*,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Washington D. C.
- Hall, Robert B. 1947. *Area Stud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ir Implications for Research in the Social Sciences*, the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pamphlet 3.
- Koppel, Bruce M. 1995. *Refugees or Settlers?: Area Studies, Development Studies, and the Future of Asian Studies*, Hawaii: East-West Center (Occasional Papers no. 1).
- Lambert, Richard D. 1973. *Language and Area Studies Review*, Monograph 17 of the American Academy and Political Social Science, Philadelphia.
- McCaughey, Robert A. 1984. *International Studies and Academic Enterprise: A Chapter in the Enclosure of American Learning*, NY: Colombia University Press.
- McDonnell, Lorraine M., Cathleen Stasz and Rodger Madison 1983. *Federal Support for Training Foreign Language and Area*

- Specialists: The Education and Careers of FLAS Fellowship Recipients*, Santa Monica: The Rand Corporation.
- Palat, Ravi Arvind 1996. *Fragmented Visions: Excavating the Future of Area Studies in a Post-American World*(forthcoming).
- Prewitt, Kenneth 1981-82. *Area Studies in the 1980s, Annual Report(SSRC)*, xiii-xxiv.
- Schwartz, Benjamin I. 1980. Presidential Address: Area Studies as a Critical Disciplin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40 no. 1 (November), 15-25.
-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1981-1982. *Annual Report*, New York: SSRC.
-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1993-1994. *Annual Report*, New York: SSRC.
- Steward, Julian H. 1950. *Area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the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Bulletin 63.
- Wagley, Charles 1948. *Area Research and Training: A Conference Report on the Study of World Areas*, the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pamphlet 6.
- Wallerstein, Immanuel. 1991. *Unthinking Social Science: the Limits of Nineteenth-Century Paradigms*. Cambridge: Polity Press (성백용 역. 『사회과학으로부터의 탈피』. 창작과비평사. 1994)의 제1부 1장, 제6부 18장, 20장).
- Wallerstein, Immanuel et. al. 1996. *Open the Social Sciences*, Report of the Gulbenkian Committee (이수훈 역. 『사회과학의 개방』. 당대)
- Ward, Robert E. 1975. "Culture and Comparative Study of Politics". In Lucian W. Pye (ed), *Political Science and Area Studies: Rivals or Partners?*,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Press, 23-47.
- Wilson, Edward O. 1999.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 New York: Vintage (최재천 · 장대익 옮김. 『통섭 - 지식의 대통합』. 2005).